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11.10(목) 오후 13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11. 10. (목)	담당부서	산업부 미주통상과
담당과장	김기준 미주통상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김태우 서기관(044-203-5651)

주형환 산업부장관, 새로운 한미경제협력 방안 제안

- ①교역 확대, ②상호투자 증대, ③신산업 협력 등 3대 분야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1.10(목) 12:30분 전경련-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8차 한미재계회의 연설을 통해 "**한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새로운 한미경제협력 방안**"을 제안했다.

□ 먼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1. 8. 미국 대선에서 **트럼프 후보**가 제45대 대통령으로 **당선**된 것을 축하하고,

○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돈독한 우방으로써, **양국 경제협력**도 굳건한 **한미동맹**처럼 **상호 호혜적 관계**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, **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방안**으로 **3가지**를 제시했다.

□ 주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한 2011년 이후 **세계교역규모가 10% 감소**한 가운데서도, **양국간 교역은 15% 증가**한 사례를 들면서, **한미 FTA**가 **양국 경제협력**과 **번영의 플랫폼**으로 **잘 작동**하고 있다고 평가했다.

○ 특히,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USITC)가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으로 **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** 2015년 한 해에만 **157억 달러 감소**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면서,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앞으로도 **상호번영의 틀**로서 **지속적인 양국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**할 것이라고 말했다.

□ 두 번째, **양국간 교역 확대**를 위한 **상호투자의 중요성**을 강조했다.

○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기업들의 대미투자가 증가, 미국내에서 **2011년 35,000명**에서 **2015년 45,000명**으로 **1만 명 이상 고급 일자리**를 창출한 점을 예로 들면서, **교역 확대**와 **고급 일자리** 창출을 위해 **양국간 상호투자가 더욱 증대**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○ 주 장관은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① **세계 최고수준의 혁신 역량***, ② **세계 50여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**, ③ **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**으로 들고,

*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연구개발(R&D) 투자비중 1위, 3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

- 특히, 한국은 **미국, 중국, 유럽연합(EU) 등 주요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**한 국가로서, 중국 등 **제3국 시장 진출의 관문(게이트웨이)으로**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했다.

□ 세 번째, 양국간 협력 유망 분야로 **사물인터넷**(IoT), **빅 데이터, 바이오** 등 신**산업 분야**를 제시하고, 양국이 협력하여 **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**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○ 주 장관은 **글로벌 밸류체인 확산, 기업내 무역** 등으로 **국가간 연구개발(R&D), 인력 교류·협력의 가능성**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.

○ 한국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① 신산업을 저해하는 **규제 완화**, ② 연구개발(R&D)·자금 **집중 지원**, ③ 지능형자동차, 에너지 신산업 등 **이종산업간 융합 연맹체(얼라이언스)**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.

○ **첨단 기술**과 **우수한 인적자원**을 갖춘 **미국**과 **정보통신기술(ICT), 제조업**을 보유한 **한국기업**들이 협력할 경우, **전기차, 스마트그리드, 에너지저장장치** 등 **새로운 비즈니스 기회**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
□ 주 장관은 한미재계회의 미국 측 대표인 **퀄컴사**가 '80년대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출발해,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**선도기업**으로 **도약**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,

○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의 **주력산업, 신산업 및 에너지** 등 다양한 분야에서 **협력을 통해 성공**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,

○ 오늘 참석한 기업분들이 **자신의 고객**(client)인 만큼, **애로·건의사항**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와 **기탄없이 말**해 달라고 당부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태우 서기관(☎044-203-56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